

中國의 經濟改革과 韓中經濟協力の 發展方向*

金 秀 勇

目 次

- | | |
|---------------------|------------------|
| 1. 序 論 | 2) 中國 開放化 政策의 方向 |
| 2. 中國經濟改革의 發展過程과 成果 | 3) 韓國의 政策對應 |
| 3. 韓國의 對中國 貿易과 投資 | 4) 韓中 協力과 東北 三省 |
| 4. 韓中 經濟協力の 發展 方向 | 5. 結 論 |
| 1) 中國 經濟改革의 基本課題 | |

1. 序 論

韓國과 中國은 國土와 人口의 크기는 물론이고 經濟와 政治體制, 經濟發展 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¹⁾ 그러나 두 나라에서 經濟成長이나 發展을 위한 노력이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또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經濟交流를 더욱 확대하고 상호 協力關係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 中國 吉林省 社會科學學會聯合會 주최 국제학술회의 「東北亞 經濟·貿易協力과 延邊經濟發展戰略」(1992. 8.12-13)에서 발표된 논문임.

1) 中國의 면적은 南韓의 97배, 人口는 1990년 현재 26배이다. 그러나 1990년 현재 일인당 GNP는 南韓의 14분의 1정도다.

1978年末부터 시작된 中國의 經濟改革은 經濟成長과 貿易의 확대, 그리고 外國資本의 도입에 크기 기여하였다. 1978년에 비해 1989년의 國民總生産은 2.5배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 總工業生産의 年平均 증가율은 12.4%, 總農業生産의 증가율은 6.0%에 달했다. 輸出과 輸入을 합한 貿易의 크기는 1978년의 206億 달러에서 1989년에는, 1,116億 달러로 5배나 늘어났고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도입된 外資의 크기는 579億 달러에 이르렀다.²⁾

1990年末 中國共產黨 제13기 중앙위 제7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國民經濟·社會發展 10個年 計劃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연간 GNP成長率은 6%, 工業生産 증가율은 7.9%, 그리고 農業生産 증가율은 3.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中國의 이와 같은 급속한 成長과 成長전망은 韓國과 中國의 經濟交流를 급속히 확대시켜 머지 않아 中國은 美國, 日本과 함께 韓國의 3大交易對象國이 될 것이다. 世界 전체적인 冷戰體制의 종식과 韓國의 北方政策, 그리고 中國의 經濟改革에 힘입어 두 나라의 經濟交流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韓·中 양국은 1991년에 각각 상대국에 貿易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1992년 2월에는 韓·中 貿易協定이 발효되고, 그리고 5월에는 投資保障協定이 체결되어 商品과 資本의 이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현재 中國은 풍부한 勞動力과 기초자원을 활용하여 급속한 經濟成長과 工業化를 추진하고 있으며 韓國은 축적된 資本과 技術을 동원하여 부족한 자원과 勞動力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두 나라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인 協力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地理的으로도 대단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2) 우홍광(武虹光), "中國經濟改革의 實際", 국민경제제도연구원,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 1991.

3)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의 10個年 計劃과 8次 5個年 計劃」, 1991.

정도의 깊은 文化的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中國(특히 東北 3省)에는 많은 수의 朝鮮族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두 나라의 協力관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經濟協力の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많다.

本稿의 목적은 韓國과 中國 사이의 經濟協力の 경험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發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經濟協力の 방향과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제약요인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韓·中 經濟交流 확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中國에서의 改革과 開放이므로 다음의 2절에서는 먼저 中國經濟改革의 진전과 성과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최근의 韓·中 經濟交流 현황을 검토한다. 두 나라 사이의 經濟協力の 發展 方向과 주요 政策 과제들에 관해서는 제4절에서 논의한다.

2. 中國 經濟改革의 發展過程과 成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中國經濟改革의 출발점은 1978年 12월에 열린 第 11期 3中全會(中國 공산당 제11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經濟發展을 국가적 목표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1976年 모택동 사망 이후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들은 文化革命기간(1966-1976)동안의 여러 政策과 經濟成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中國經濟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生産性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였다.⁴⁾

農業과 工業部門에서의 生産性의 향상을 위해서는 統制와 計劃에만 의존하는 命令經濟체제를 과감히 改革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개인의 報酬를 生産에 연결시키고 企業과 地方政府의 意思決定權을 확대

4) D.H. Perkins, "Reforming China's Economic Syste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88.

하는 改革이 착수되었다.

中國 經濟改革의 초기에는 農村經濟制度의 改革이 강조되었다. 1979년까지의 中國 農村의 經濟構造는 人民公社體制였으며 集體所有, 획일적 經營方式, 平等主義的 分配制度등이 기본적 특징이었다.⁵⁾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農村經濟改革은 소위 農家契約責任制度의 확대가 주축이 된 것이었다. 이 제도의 기본 내용은 농민들이 받게 되는 보수가 농민들의 실제 생산실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農家契約責任制度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휘라는 빈곤한 지역에서 1978년 기근 때 한 공산당 관리가 이 제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보급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⁶⁾ 그러나 이 制度가 農業生産과 農家輸入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하게 되었다.⁷⁾ 1983년말에는 總農家の 98%에 해당하는 1億8千萬 農家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20-30개의 農家が 모여서 한 팀이되는 生産隊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集團형태의 계약제도는 個別農家중심의 계약제도로 전환되었다.

農家契約責任制度 다음으로 중요한 改革은 國家의 농산물 구매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었다. 곡물, 면화, 설탕,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품의 정부 구매가격은 1979년에 평균 20.1% 인상되었고 1980년에는 8.1%인상되었다.⁸⁾

세번째로 중요한 改革은 農業生産의 결정에서 市場의 역할을 확대한

5) 우홍광, 앞의 논문, 1988, p.100.

6) 가쓰지 나카가네(中乘和津次), “中國의 經濟改革 : 過程, 問題點 그리고 展望”, 국민경제제도연구원,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 1991.

7) 1978년말의 3중全會에서 이 제도가 승인되었지만 완전한 공식승인은 1981년에 이루어졌다.

8) 우홍광, 앞의 논문.

것이다. 農業改革 이전에 中國정부는 양곡의 自給自足を 강조하였다. 그러나 양곡의 정부구매가격은 市場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양곡 생산에 比較優位가 있는 지역에서 양곡 생산을 증가시키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곡 생산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양곡 수요충족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지역별 양곡 자급자족체계가 되어 農業生産에서 비교우위나 수익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목표생산량의 달성을 위한 計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⁹⁾ 이러한 자급자족 政策이 효율적 자원사용을 저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中國정부는 양곡 輸入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양곡 구매쿼타를 축소시켰으며 또한 農業計劃에 포함되는 品目の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市場이 農業生産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민간에 의한 地域間 農産物 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도 이와 같은 방향의 改革이었다.

이러한 改革政策의 결과로 農業生産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2-78年 기간에 農作物의 생산은 연평균 2.5%의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改革 이후인 1978-84年 기간에는 증가율이 5.9%로 높아졌다. 또한 現金作物이 차지한 경지면적은 1978年의 9.6%에서 1984년의 13.4%로 크게 늘어났다.¹⁰⁾

1985년부터는 農業改革의 제2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정부는 1985年 봄에 農業에서의 강제적인 生産計劃을 설정하지 않고 의무적인 구매쿼타 대신 정부와 농민 사이의 購買契約制度를 도입한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現物로 지급되던 農業稅를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農産物의 판매가격에 대한 통제도 완화한다는 政策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農産物 생산의 증가가 둔화되고 1985년부터 양곡 생산이 감소하게 되자 의무적 정부 구매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즉, 1984년까지 農業改

9) Justin Yifu Lin, "Rural Reforms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92.

10) 위의 논문, Table 1 및 p.29.

革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그후에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지역, 특히 工業部門에서의 본격적 改革은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4年 10월에 열린 第12期 3中全會에서 “經濟構造의 改革에 대한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決定”이 채택되었다. 이 決定은 中國의 社會主義經濟는 計劃과 公的所有的 원칙을 유지하면서 모든 經濟活動은 市場原理에 기초하도록 하는 “計劃商品經濟”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經濟改革의 중심고리는 企業의 活性化에 있으며 성공의 열쇠는 價格改革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改革政策의 결과 몇가지 중요한 효과들이 나타났다. 첫째, 과거에는 거의 모든 工產品이 計劃에 의거하여 行政채널을 통해 배분되었으나, 1984년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投入物과 產出物이 市場을 통해서 거래되게 되었다. 市場을 통해 공급되는 원료나 중간재의 비중은 1984年의 16%에서 1985年의 27%로 증가하였다.¹¹⁾ 둘째로 公企業의 관리자들에게 商品판매, 고용, 보너스 등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利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企業들은 과거와 같이 總生産 價値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利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利潤의 확대는 企業이 市場의 규칙에 따를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利潤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은 企業들의 행동이 市場세력에 크게 따르게 됨을 의미한다.¹²⁾

세번째의 중요한 변화는 가격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1978年 改革전까지 中國 工產品 價格은 거의 전부가 1950년대 중반 수준에서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동안의 中國內에서의 需要·供給의 변화나 世界 市場에서의 주요 가격변동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체계가 지속된

11) Perkins, 앞의 논문, p. 614.

12) 그러나 이윤은 계획당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의 원료를 많이 확보하거나 교섭에 의해 세율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윤추구가 반드시 시장기능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것이다. 市場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改革에서 價格결정에 대한 改革은 필수적이다. 改革의 일환으로 中國은 기초자원이나 곡물과 같은 主要商品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들이 國家計劃에 의한 생산에 사용될 경우는 公式的인 國家價格을 적용하고 計劃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에 사용될 경우는 市場價格이 적용되도록 하는 二重價格制度를 실시하였다. 1990년의 경우 總原料品目の 40%가 二重價格制 품목이었다. 中國에서는 현재 이러한 二重價格制에서 單一價格制度로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中國의 都市·工業부문의 改革에서 매우 획기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은 對外開放政策이었다. 開放政策은 대부분의 다른 都市部門 改革보다 앞서 실시되었다. 開放政策에 힘입어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 中國의 輸出은 76億 달러에서 220億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¹³⁾ 工產品의 輸出은 世界市場에서의 外國商品과의 경쟁, 그리고 輸入은 國內市場에서 外國商品과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中國經濟에서 貿易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된다는 것은 經濟전체에서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中國은 外國人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979년에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공포하였다. 1980년에는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 그리고 福建省의 廈門에 經濟特區를 설치하였다.¹⁴⁾ 經濟特區는 해당 지역에 社會間接投資를 집중적으로 하고 外國企業에 대해 稅制 등에 우대조치를 위하여 外國人投資를 유치하여 輸出加工地域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된 것이다.

1984년에는 大連, 天津, 靑島, 上海, 廣州등 14개의 沿海開放都市를

13) 1982-86년사이에는 수출의 증가가 정체된 시기였다.

통관기준으로 1982년의 223억 달러가 1986년의 309억 달러로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이후는 다시 빠른 증가를 나타내어 1989년에는 525억 달러, 1991년에는 719억 달러가 되었다.

14) 경제특구의 설치를 결정한 것은 1978년의 3中全會에서 였다.

지정하고 1985년에는 長江三角洲 등 3개의 三角洲 지역을 沿海經濟開放區로 지정하였다. 1988년에는 省으로 승격된 海南島 전체를 다섯번째의 經濟特區로 지정하였다. 沿海開放都市내에는 經濟技術開發區를 설치하여 經濟特區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外資系企業에 제공하여 外國人投資를 유치하려 했다. 經濟特區와 經濟技術開發區의 주요 차이점은 特區에는 개발자금이 中央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行政적으로 타지역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經濟政策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經濟技術開發區는 地方政府의 자금으로 개발되고 행정적으로 地方政府에 소속되어 있는 점이다.¹⁵⁾ 또 經濟特區가 加工輸出 위주의 自由貿易지대의 성격이 강한 반면 開放都市는 특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經濟技術開發區의 설립을 통해 선진기술 도입창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中國의 開放지역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1988년에는 沿海지역 대부분이 開放地域으로 확대 지정되고 1989년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內陸지역으로도 開放지역이 확대되었다. 1992년 6월에는 上海로부터 重慶에 이르는 長江 유역 28개 도시와 8개 현을 開放, 外國資本을 유치하여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되었다.¹⁶⁾

적극적인 開放과 直接投資의 유치政策으로 中國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의 外國人直接投資의 실적은 계약기준으로는 389億 달러, 실제사용액 기준으로는 189億 달러에 달했다. 1990년까지 전체 外國人直接投資 계약금액의 39%는 合資企

15) 金時中,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對外經濟政策 研究院, 1991.

16) 中央經濟新聞, 1992. 6. 30.

17) 金時中, 앞의 책.

合作經營企業은 전형적인 joint venture인 合資會社와는 달리 기업의 설립, 해산 등이 비교적 쉽고 經營權이나 利潤의 配分등이 계약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형태이다. 資源合作開發은 海洋石油 및 천연가스의 탐사·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말한다.

業, 38%는 合作經營企業, 14%는 外國人獨資企業, 그리고 나머지 9%는 資源合作開發의 形態라는 구성을 보였다.¹⁷⁾ 계속 늘어나는 外國人直接投資와 輸出, 그리고 5個經濟特區가 이들 直接投資와 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中國의 적극적인 開放政策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特區의 經濟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工貿結合”의 전략도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의 中國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규모는 계약기준으로 57億 달러였는데 이의 1/3에 해당하는 18.6億 달러가 經濟特區에 대한 투자였다. 1989년 5個 經濟特區의 總輸出額은 38億 3千萬 달러로서 이는 中國 전체 輸出額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성장율을 보면 1980년-88년 사이 中國 總輸出의 연평균 증가율은 10.5%였음에 비해 經濟特區의 輸出증가율은 46.7%나 되었다.¹⁸⁾

中國에서의 改革 開放政策은 國民所得과 投資, 外國貿易, 資本導入등을 급속히 증가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總需要와 總供給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非合理的 價格構造와 產業構造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증대한 政策과제가 되게 만들었다. 1984년 이전까지는 中國의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經濟改革이 시작된 1984-85년 이후 물가 상승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1988-89년에는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가 모두 두자리의 상승율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1988년에는 사람들의 물건 사재기와 이를 위한 銀行預金引出사태도 벌어졌다.¹⁹⁾

經濟의 過熱을 부채질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經濟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中國은 改革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巨視經濟的 規制政策을 1988년의 13期 3中全會에서부터 강조하였다.²⁰⁾ 經濟矯正을 위한

18) 吳勇錫, 中國經濟特區戰略의 平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19) 가쓰지 나카가네, 앞의 논문.

20) 소위 “治理經濟環境, 整頓經濟秩序”의 목표가 이때 결정되었다.

긴축적인 通貨政策과 經濟計劃의 역할 확대로 經濟改革은 주춤하고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크게 낮아졌다. 즉, 實質 GDP성장율이 1987年과 1988년에는 각각 10%를 초과하였으나 1989年과 1990년에는 각각 3.9%와 5.0%로 떨어지고 消費者物價 상승율은 1988年과 89年の 18.5%와 17.8%에서 1990年과 91年の 2.1%와 3.4%로 낮아졌다.²¹⁾ 이러한 경제안정화 추세에 힘입어 1992年 4월의 第7期 全國人民代表者大會 第5次 全體會議은 經濟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이봉 수상이 발표한 政府工作報告(施政演說)에서도 “共產黨 基本路線인 改革·開放 원칙은 100年間 不變”임을 명문화 하였다.

3. 韓國의 對中國 貿易과 投資

韓國과 中國의 商品貿易은 홍콩등을 통한 間接貿易의 형태로 1976年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에 韓國은 中國으로 부터 고추, 마늘, 참깨 등을 輸入하였다.²²⁾ 그후 1979년에 韓國은 中國으로부터 석탄을 輸入하고 中國은 韓國에서 전자제품을 輸入함으로써 間接貿易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韓國의 對中國貿易의 크기는 1985년에 10億달러가 넘었고 1991년에는 50億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급속히 成長하였다. 韓國과 中國이 언제부터 直接貿易을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1988년에 서울과 北京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었고 두 나라 사이의 海運 직항로가 열렸다. 또 같은 해에 中國은 韓國과 直接貿易을 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인하였다.²³⁾ 1989년에는 두 나라가 서로 貿易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韓國은 1991年 1월 中國은 1991年 3월에 각각 北京과 서울에 貿易대표부를 개설하였다. 또한 1992年 2월에는 1991年 12월에

21) 한국은행, 주중 해외경제동향, 1992. 2. 23.

22) 李相俊, “韓中 경제협력과 北韓·中 경제관계”, 季刊 北韓研究, 1991년 봄호.

23) 李相俊, 앞의 논문.

조인된 貿易협정이 發效되었다. 이로써 貿易절차가 간소화되고 直接貿易 중심의 貿易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中國은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이스라엘이나 남아프리카로부터의 輸入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높은 關稅를 부과하였다. 貿易協定の 발효로 5%내지 30%의 이러한 차별 關稅가 철폐되므로 앞으로 韓國의 對中國輸出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表1>은 1985년부터 1992년 5월까지의 韓國의 對中國 貿易실적을 부여준다.

〈表1〉 韓國의 對中國 輸出入

단위 : 백만 달러, %

年度	輸出	輸入	貿易收支	對中國輸出	對中國輸入
				總輸出	總輸入
1985	683	478	205	2.3	1.5
1986	668	621	47	1.9	2.0
1987	813	866	-53	1.8	2.1
1988	1,700	1,387	313	2.8	2.7
1989	1,438	1,705	267	2.3	2.8
1990	1,553	2,268	-715	2.4	3.2
1991	2,370	3,395	-1,025	3.3	4.2
1992.1-5	1,485	1,626	-141	5.0	4.7

註 : 輸出額은 直輸出과 홍콩을 통한 間接輸出을 포함.

자료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主要統計, 1992. 3.

李相俊(1991), 앞의 논문.

商工部.

이 표가 나타내듯이 韓國의 對中國貿易은 절대액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貿易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해왔다. 비공식적으로 교역이

시작된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中國은 輸出과 輸入에서 韓國에 매우 중요한 貿易상대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1991年 기준으로 中國은 韓國에게 여섯번째로 큰 輸出市場이며 輸入에 있어서는 네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²⁴⁾ 현재 추세대로라면 中國은 곧 美國과 日本 다음으로 중요한 韓國의 貿易상대국이 될 것이다. 1989年과 90年 對中國 輸出이 정체되었던 것은 이 당시의 中國에서의 긴축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中國의 總輸出은 늘어났지만 總輸入은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²⁵⁾

韓國이 中國에 輸出하는 품목은 주로 工產品으로서 섬유, 전자, 철강, 화학제품 등이고 輸入은 석탄, 옥수수, 원면, 섬유사 등 1次產品과 工產品原料가 대부분이다. 일부 품목의 中國으로부터의 輸入급증은 韓國내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버섯, 고사리, 꽃감, 나무젓갈, 당면 등 과거에는 輸入되지않던 품목들이 中國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輸入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一例로 1992年의 1/4분기(1월-3월)에 中國產 당면이 5천 3백톤 輸入되었는데 이는 前年같은 기간 輸入의 2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輸入의 증가로 中國產 당면의 韓國 當面市場 점유율은 60%가 넘게 되었다.²⁶⁾ 이러한 中國 농산품 또는 가공식품의 輸入급증은 국내 生産者들의 輸入규제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반 여론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韓國의 對中國投資는 두 나라 사이의 貿易이 시작된 것보다는 훨씬 늦게 1985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이후 1988년까지는 홍콩과 日本의 현지 법인을 통한 우회投資의 형태로 소규모의 投資가 이루어졌다.²⁷⁾ 우회형태가 아닌 韓國企業의 直接投資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4) 輸出에서는 美國, 日本, 홍콩, 獨逸, 싱가포르, 輸入에서는 日本, 美國, 獨逸이 中國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5) 鄭永祿, 先進國의 對中經濟交流分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附表1.

26) 농민신문, 1992. 7. 1.

27) 楊平變, "韓國의 對中投資 推移와 特徵", 北方經濟, 1992. 5.

對中國投資의 件數와 金額은 〈표2〉에 나타나 있다. 1992年 6월말까지 총 290건, 2億 4천9백만 달러의 投資가 허가되었다.²⁸⁾

〈表2〉 韓國의 對中國 投資

	1985-88	1989	1990	1991	92.1.-6.	합 계
件 數	9	15	42	116	108	290
金額(百萬달러)	14.3	11.7	59.4	78.9	84.9	249.2

註 : 韓國銀行 許可기준.

資料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主要統計, 1992. 3., 韓國銀行.

위 표에서 보듯이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는 1990년부터 크게 늘어났다. 1990年の 對中國直接投資額은 같은 해 韓國의 전체 海外直接投資의 7.4%에 해당하였으며 1991년의 이 비율은 5.7%였다. 1992年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16%로 크게 늘어났다. 投資 건수로 보면 中國은 1991年, 그리고 1992年 상반기에 韓國의 가장 중요한 直接投資 대상 지역이었다.

1991年末 현재의 잔존허가준으로 對中國投資件數의 88%와 金額의 90%가 製造業에 대한 投資이다. 건수로서는 섬유·의류, 전기·전자, 신발·피혁, 음식료의 순으로 많아 이들이 전체 제조업투자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²⁹⁾ 이들은 대부분이 勞動集約的인 업종으로서 生産技術과 세계市場에서의 마케팅 技術을 가진 韓國企業이 中國의 풍부하고 저렴한 勞動力을 활용하기 위한 형태의 投資임을 알 수 있다. 投資 형태로는 合資企業이 60%이고 獨資企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 直接投資의 中國內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1991年말 현재 山東省이 전체 投資액의 1/3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瀾龍江省, 遼寧省, 天津市

28) 실제로 집행된 투자는 1992년 5월말 현재 80건, 9천 3백만 달러였다.

29) 楊平變, 앞의 논문, 〈표8〉.

등의 순으로 많은 금액의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다. 吉林省의 경우는 投資금액이 690萬 달러로서 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投資의 대부분이 延邊朝鮮族自治區에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발해만 지역과 東北三省 지역에 韓國 投資가 집중되어 있어 금액 기준으로 이들의 비중은 84%나 된다.³⁰⁾

主要 外國의 投資지역 구성과 비교할 때 이러한 韓國의 패턴은 매우 다르다. 美國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江蘇省, 上海, 廣東省, 北京, 등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日本의 경우는 上海, 江蘇省, 北京, 天津 및 遼寧省의 순서를 나타낸다.³¹⁾ 韓國은 이들 선진국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上海, 江蘇省 지역에 대한 投資가 매우 미비하고 대신 북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投資의 규모로 보면 韓國의 對中國 投資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 계약 기준으로 中國이 1990년에 도입한 外國人直接投資는 65.7億 달러였다. 같은해 韓國의 對中國直接投資 허가액은 5千9百萬 달러였으므로 전체에서 韓國의 直接投資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이것은 中國의 商品貿易에서 차지하는 韓國의 비중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990년의 中國의 總輸入은 통관기준으로 533億 달러였는데 韓國의 輸出은 15.5億 달러였으므로 韓國의 비중은 2.9%였다.³²⁾ 계약기준으로 1987-1991년의 5年 동안 美國은 45億 달러, 台灣은 39億 달러 그리고 日本은 37億달러를 中國에 直接 投資를 하였다.³³⁾ 이에 비해(表2)에서 보듯이 1991년까지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허가금액이 1億 6천만

30) 楊平變, 앞의 논문, <표7>.

31) 鄭永祿, 앞의 책, pp. 45-47.

32) 韓國의 輸出은 FOB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中國측의 통관 기준으로는 보다 많은 수입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中國輸入에서의 비중은 2.9%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每日經濟新聞, 1992. 7.6.

달려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같은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다.

直接投資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技術輸出에 있어서도 中國은 韓國의 가장 중요한 對象國이 되었다. 中國에 대한 技術輸出은 1989년에 처음 시작되어 1990년에는 4건, 1991년에는 6건의 技術輸出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輸出실적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2年 상반기(1월-6월)에 韓國의 技術輸出실적(신고수리 기준)은 62건이었는데 이중 33건이 中國에 대한 輸出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금속, 화학, 섬유 순이었다.³⁴⁾

최근에는 두 나라 사이의 人的交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韓國과 中國 사이의 定期航路가 개설된 이후 中國교포들의 韓國방문이 크게 늘고 이들의 韓國內 취업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2만여명의 교포가 韓國에 장기체류하면서 취업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中國교포의 韓國에서의 취업은 위법이지만 韓國에서의 人力부족과 높은 임금 때문에 불법취업이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취업형태가 제한적으로 공식화되거나 또는 韓國企業의 海外建設이나 資源開發事業, 원양어업등에 中國교포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경우 中國의 人力 진출은 韓中經濟協力の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4. 韓中 經濟協力の 발전 방향

지난 수년간 급속히 진전되어온 韓國과 中國 사이의 經濟交流는 앞으로 당분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市場機能의 확대와 對外開放이라는 中國에서의 改革이 계속되고 韓國과 中國의 政治的 關係도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韓國에서도 소위 北方政策의 일환으로 中國과의 交流확대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韓國과 中國의 經濟交流의 크기나 내용은 두 나라에서의 經濟構造와 經濟規模,

34) 每日經濟新聞, 1992. 7. 17.

經濟 政策의 基調, 世界經濟環境 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두 나라의 經濟協力關係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본적인 政策問題를 논의하고 東北亞經濟協力이라는 관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논의한다.

1) 中國 經濟 改革의 기본과제

中國經濟는 넓은 國土와 풍부한 自然資源과 勞動力, 그리고 현재의 매우 낮은 所得水準으로 인해 앞으로의 成長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인당 GNP수준은 韓國의 1/14정도이지만 전체 인구는 韓國의 26배 가량 되므로 GNP규모는 韓國에 비해 2배 가까이 된다.³⁵⁾ GNP규모로 보면 中國經濟는 세계에서 7, 8위 정도로 크다. 그러나 中國보다 經濟 규모가 큰 나라로서 中國과 같이 빨리 成長하는 나라는 없으므로 글자 그대로 中國이 成長잠재력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다. 中國은 1981-90년 기간중에 연평균 10%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여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成長率을 실현하였다. 工業部門의 附加價值成長率에 있어서도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³⁶⁾

中國 經濟의 급속한 成長은 韓國을 비롯하여 中國과 交流하는 모든 나라에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韓國商品의 市場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이며 韓國 企業의 진출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90년의 경우에서처럼 지나친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나친 緊縮政策이 사용되어 經濟變動의 폭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관심사는 中國의 經濟改革이 장기적 高度成長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978년 이후 中國에서 진행중인 經濟改革은 현재 러시아나 헝가리,

3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GNP추계는 추계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GNP의 비교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36)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1, Statistical Appendix.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經濟改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러시아나 東歐 여러나라에서의 改革은 社會主義體制로부터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기 위한 改革임에 반해 中國에서의 改革은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市場經濟要素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말의 中國共產黨 제13기 중앙위 제7차 전체회의(7中全會)에서는 지난 10년간의 改革·開放 政策을 평가하고 앞으로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정했다. 이 7중전회에서 통과된 “國民經濟와 社會發展10個年計劃 및 8次 5個年計劃의 制定에 관한 中共中央의 建議”에 의하면 中國은 社會主義현대화 건설의 1단계 목표인 國民生產總額을 2배로 증가시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1980년대에 달성하였고 1990년대에는 2단계로서 다시 國民生產總額을 2배로 증가시켜 인민생활의 질을 풍요롭게하고 公有制를 주체로 하는 社會主義計劃商品經濟를 구축하여 計劃經濟要素와 市場經濟要素가 서로 혼합된 經濟體制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여년간 中國은 農村에서의 集團農耕제도를 해체하고 企業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제를 확대하였으며 價格制度를 改革하여 市場에서의 수요 공급관계가 價格決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통제가격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貨金制度도 改革되어 企業은 개인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의 分權化가 확대되어 지방 經濟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生産手段의 公有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물론 私企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특별한 경우의 실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하여 허용되거나 파산한 소규모 公企業들을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여 발생한 것이었다.³⁸⁾ 물론

37)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의 10個年計劃과 8次 5個年計劃, 1991.

38) 가쓰지 나카가네, 앞의 논문.

外國資本은 100% 민간 소유 企業을 건립할 수 있었다. 어쨌든 1978년에서 1987년 사이에 총공업생산액에서 個人, 私企業, 合作企業 그리고 외국인 소유 企業이 차지한 비중은 0%에서 겨우 2.4%로 늘어났을 뿐이다.³⁹⁾ 中國정보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에는 私企業과 外國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높아졌다. 한편 國營企業의 비중은 54.6%였고 나머지 35.6%는 半官半民 성격의 鄉鎮企業의 생산이었다.⁴⁰⁾

1991년 2월에 中國 經濟體制計劃委員會의 陳金華 主任은 “社會主義計劃 商品經濟 體制的 건립”이라는 보고에서 社會主義的인 改革은 公有制를 주축으로 하고 각종 소유형태가 혼합된 소유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個體, 私營, 三資企業들의 적절한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만 이들 企業은 어디까지 社會主義 公有制的 보조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⁴¹⁾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公的 소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연 市場機能이 충분히 발휘되는 經濟體制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中國이 命令式 計劃經濟 대신에 市場經濟를 도입하는 改革을 한 이유는 과거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經濟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따라서 빠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主義의 두 기둥인 생산수단의 公有와 中央計劃중에서 생산수단의 公有라는 골격은 유지한 채 命令式 中央計劃만 改革함으로써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같은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經濟的 活動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市場經濟의 利點을 살리기 위해서는 企業經營의 自律性이 보장되고 價格改革이 이루어져 市場價格이 경영자의 판단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企業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市場가격과 경쟁에

39) 우홍광, 앞의 논문.

40) 每日經濟新聞, 1992. 7. 16.

41)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經濟體制改革의 基本方向, 1991.

따른 새로운 市場에의 진입이나 離脫이 이루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나 고용,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경영자가 진정한 자율권을 갖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價格改革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長期的으로는 所有問題에 改革이 없는 한 市場經濟 요소를 도입하는 改革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社會主義經濟의 부분적 改革이 기대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1960년대의 東歐의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보다 일찍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실시한 改革의 기본 구상은 社會的 所有와 中央計劃이라는 두 기둥 중에서 後者를 축소 또는 포기하고 대신 市場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국의 改革이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 모두는 市場經濟를 도입하는데 실패했고 단기적으로만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⁴²⁾ 이점에 관해 1990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선언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中央計劃經濟로부터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中央計劃과 市場經濟를 혼합하려 했던 196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國家가 지배하는 經濟로부터 民間部門, 民間主導 그리고 民間企業精神에 기초한 經濟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經濟를 조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한 지식인과 관료들의 야심에 기초한 사이비 合理的인 社會工學의 악순환을 다시는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⁴³⁾

中國의 政策 책임자들은 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결합에 있어 보다 나은 방안을 계속찾아내는 것이 바로 經濟改革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42) John Williamson, *The Economic Opening of Eastern Europe*, 1991. Ch. 2.

43) Václav Klaus, “A Perspective on Economic Transition in Czechoslovakia and Eastern Europe”, *Proceedings of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0, 1991.

있다. 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결합은 일시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經濟發展의 단계와 市場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 방법이 무단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앞으로 中國經濟의 성과는 어떤 결합방식들이 사용되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企業의 私有化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않고서는 잠재적 成長能力 이하의 成長만이 가능할 것이다.

2) 中國 開放化 政策의 방향

中國 經濟의 開放은 對外貿易의 확대와 資本 導入의 증가로 그 진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中國의 貿易額은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유치된 外國人直接投資는 계약기준으로 390億 달러에 달했고 역시 1979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차관으로 외채총액은 1988년에 이미 400億 달러에 이르렀다. 지역별 開放은 經濟特區에서 시작하여 沿海開放都市와 沿海開放區로 확대되고 다시 內陸地方으로 開放地域이 확대되었다. 外國으로부터 차관과 直接投資의 도입은 外國의 資本財와 技術의 도입, 社會間接시설의 확충, 輸出生産의 증가 등을 통해 中國의 輸入과 輸出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輸出과 輸入의 증가는 資源使用을 보다 效率的으로 만들고 생산에 참여하는 資源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각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서 中國經濟의 빠른 成長에 기여하였다.

지난 10여년간의 中國의 빠른 成長은 國內에서의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두가지 政策의 효과가 상승작용을 한 결과이다. 開放에 의한 外國資本과 技術 도입의 成長 촉진효과가 國內에서의 企業經營, 價格構造 등의 改革에 힘입어 다른 부분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에서의 改革과 이로 인한 中國經濟의 밝은 전망이 外國資本과 技術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그러므로 국내 改革과 開放중 어느

44)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經濟體制改革的 基本方向, 1991.

쪽이 더 중요하게 成長에 기여했는가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中國經濟에서 開放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본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經濟의 開放은 社會主義經濟의 自給自足的 폐쇄성에서 벗어나 世界市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며 이는 輸出과 輸入이 中國經濟의 成長과 生産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이 國際貿易에 적극 참여하여 貿易의 이익을 얻는다고 할 때 中國經濟에서 貿易의 역할은 오늘의 先進國이나 新興工業國에서의 貿易의 역할과 다른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中國보다 經濟開發段階가 앞선 韓國이나 다른 市場經濟體制 國家들에서 輸出의 대대적인 확장은 다른 부분(예를 들면 輸出競爭部門)의 生産 감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生産資源이 대체로 完全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의 증진을 위해선 資源이 타 부문에서 輸出 生産으로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부문의 生産이 줄더라도 輸出을 통해 가능해진 輸入이 타부문의 生産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貿易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즉 資源의 完全고용 상태에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生産하는 것을 輸出하고 비싸게 生産하는 것은 輸入하는 것이 貿易을 안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比較生産비의 원리에 따른 貿易이다.

그러나 中國에서 貿易의 본질은 剩餘資源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輸出을 위해서 다른 부문의 生産이 감소될 필요가 없다. 즉, 勞動이라는 잉여 資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으로 農業 生産이나 다른 부문의 工業 生産을 감소시키지 않고 勞動集約的인 工業品의 輸出을 증가시킬 수 있다. 輸出 商品 生産에 필요한 資本財나 輸入原料는 直接投資와 輸出代金에 의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中國貿易은 Adam Smith가 말하는 'vent for surplus'이론이 David Ricardo의 比較 生産비이론이나 Heckscher-Ohlin이론 보다 잘 설명한다고 보아야 할

45) vent for surplus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 Myint, "The 'Classical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Journal*, June 1958.

것이다.⁴⁵⁾ 즉, 中國은 매우 작은 비용으로 輸出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輸入物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中國의 잉여노동력은 도시부문에 실업자로도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農村의 잉여노동력이다. 8차 5개년 計劃(1991-96)에서도 고용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農村의 노동력은 4억 2천만명 가량 되는데 농업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2억명 정도이고 나머지 2억2천만명 중 鄉鎮(農村)企業에 투입된 9,000만을 제외하면 1억3천만명이 잉여노동으로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되어야 하는 형편이다.⁴⁶⁾

農村의 잉여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시켜 이들을 輸出생산에 投入한다고 할 때 이에 수반되는 費用은 물론 존재한다.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감소라는 기회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輸出生産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드는 것이며 이들이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고 새롭게 커지는 도시의 여러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中國은 잉여노동력을 사용한 輸出의 전망이 가장 밝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기본 방향도 이 사실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韓國이나 台灣에서 1960년대에 경험한 工產品輸出의 급속한 成長은 農村部門에서 충분한 노동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實質賃金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製造業部門의 利潤率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었다. 높은 利潤은 다시 저축과 投資를 증가시켜 높은 經濟成長을 가져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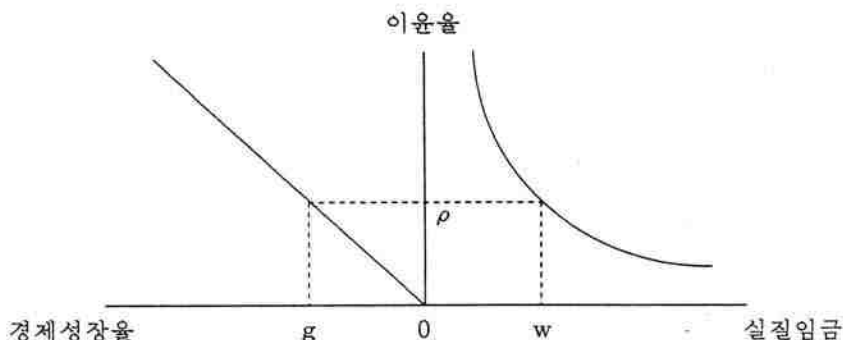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⁴⁷⁾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신고전과 成長理論에서의 要素價格線으로 위에서 말한 임금과 利潤率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왼쪽은 利潤率과 成長率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축은 利潤의 일정비율이라고 할 때 利潤의 크

46)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의 10個年計劃과 8次 5個年計劃.

47) Ronald Findlay, "Growth and Development in Trade Models", R.W. Jones and P. B. Kenen,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 1984.

기에 따라 저축, 즉 投資의 크기가 결정되고 投資스톡의 증가율이 產出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⁴⁸⁾

〈그림 1〉



물론 이것은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매우 단순화된 모형에 의한 것이지만 오늘의 開放화된 中國經濟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國際貿易에 관한 中國은 아직도 소규모 經濟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世界市場의 가격을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일정한 外換을 획득함에 있어 실질임금이 주어지면 利潤率이 결정된다. 社會主義에서는 企業이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利潤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나 이윤의 일정부분을 자본설비에 투자한다면 이윤율과 산출량 증가율은 정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위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經濟特區나 開放都市들에 外國企業을 유치하면서 특히 輸出企業에 대해 우대하는 政策을 취한 것은 올바른 방향선택이다. 1986년에 공포된 '外國人 投資 장려에 관한 규정'은 製品

48) 소득(Y)은 임금(W)과 이윤(P)의 합이고 저축, 즉 투자(I)는 이윤의 일정비율(s)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Y=W+P, I=s \cdot P$ 이다.

Y와 자본스톡(K)간의 일정한 관계를 가정하면 Y의 증가율(g)은 K의 증가율, 즉 $I/K=s \cdot (P/K)$ 와 같게 된다. P/K 는 이윤율(ρ)이므로 $g=s\rho$ 가 된다.

輸出企業과 先進技術企業을 지정하여 우대하는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⁴⁹⁾ 先進技術企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도 輸出증대나 輸入代替의 성과가 기대되어야 한다. 中國輸出의 商品구성이 노동집약적 商品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輸出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經濟成長率이 같이 나타나는 것도 위의 모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中國學者들은 外國人直接投資가 勞動集約的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資本이나 技術集約的인 분야에는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外資 사용구조의 非合理性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반적인 產業政策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발에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숙련노동이나 知識·技術집약적인 산업도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두 종류의 산업이 다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異見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政策효과는 기대하는 것처럼 바람직스럽게 나타나기 어렵다. 輸出산업도 장려하며 동시에 輸入代替 산업도 장려하는 政策을 추구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輸出산업을 위축시킨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경험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⁵¹⁾

3) 韓國의 政策대응

1988년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정부는 소위 北方政策을 표명하고 社會主義國家들과의 관계개선과 經濟交流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韓國의 北方政策과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에 힘입어 지난 수년 사이에 韓中交

49) 製品輸出企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의 50% 이상이 수출되어야 한다.

50) 예를들면, Shi Min,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astal Areas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1.

51)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中國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勞動集約的인 工產品의 수출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중국학자들도 들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金東, "中國對外貿易構成的發展趨勢에 관한 思考", 韓國經濟學會, 經濟學研究, 제39집 제1호, 1991년 6월.

流는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진전되었다. 앞으로 韓中經濟協력이 어떤 형태로 발전될 것인가는 中國에서의 政策 뿐만 아니라 韓國에서의 政策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韓國의 입장은 두 나라 사이에 상호이익이 되는 經濟交流의 확대 여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商品貿易과 直接投資는 앞으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며 이러한 交流의 확대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韓國은 中國經濟의 확대에 따라 電子, 機械, 鐵鋼, 化學 등의 韓國商品에 대한 市場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섬유, 鑛產物, 에너지, 농산물 등의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中國의 原料와 勞動力을 이용하는 商品을 中國에서 생산하여 輸出하기 위한 直接投資, 石油, 石炭 등의 자원개발과 道路, 항만, 통신설비 등의 社會間接資本 건설에의 참여가 확대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서 基礎科學技術의 協力, 技術者 연수, 公害防止 등에서의 協力 등도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체로 긍정적인 韓中協력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政策問題가 등장한다. 첫째는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政策대응이다. 1991년의 경우 韓國의 中國으로부터의 수입은 34億달러에 육박하였고 貿易收支는 10億달러 赤字였다. 1990년에 비해 수입액은 50%나 증가한 것이었다. 韓國 정부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당근, 메주, 이수시개, 고사리, 꽃감, 표고버섯 등 14개 농림수산물에 대해 1992년 5월부터 調整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이 中國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다. 調整關稅는 새로이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지정된 品目 중 수입억제가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關稅로서 세율은 기본세율을 포함하여 100%까지 될 수 있다.

國內의 生産者가 급격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中國과의 본격적인 經濟交流가 확대되는 초기 단계에 이와 같은 수입 규제 政策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수입 규제에 의해서 얻게 되는 “이익”(수입감소와 이로 인한 국내생산의 증가)의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이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

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中國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며 앞으로 韓國內에서 다른 품목들의 수입이 늘어날 때 이들 生産者들의 保護貿易 요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의 政策問題는 中國에 대한 投資 또는 技術移轉의 국내 산업에 대한 효과에 관한 것이다. 中國은 이미 美國이나 日本市場에 韓國 商品과 경쟁 관계인 商品을 많이 輸出한다.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商品에서 특히 그렇다. 앞으로 이러한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韓國內에서는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나 技術移轉은 결국 海外市場에서 中國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韓國은 이들을 억제하거나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문제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다. 韓國이 아니더라도 台灣, 日本 등 여러 다른 나라가 中國에 投資할 것이므로 韓國의 投資抑制政策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中國으로부터의 경쟁이 韓國의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政策 방향이다. 또한 中國에 대한 投資의 확대가 中間財, 部品 등의 형태로 해당 산업의 對中國 輸出을 크게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中國內需市場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韓國 정부는 韓國의 企業들이 中國에 投資하기 전에 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게 돕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中國에 진출한 韓國의 中小企業들은 中國 근로자의 관리, 원자재의 획득, 販路의 확보 등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⁵²⁾ 이는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外國投資의 경험이 거의 없고 정보가 부족한 中小企業들이 주로 中國에 진출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韓國政府는 1992년 7월 中國 天津에 약 1.3

52) 中央日報, 1992. 6. 20.

km(39만 3천평)의 토지를 50년간 장기임차하여 韓國 전용공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韓國의 中小企業들이 中國에 진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直接投資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⁵³⁾ 中國에 진출하는 中小企業의 대부분은 섬유와 전자 관련 企業들인데 天津 공단이 설치되면 1백개 정도의 中小企業이 이곳에 진출한 수 있을 것으로 韓國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4) 韓中 協力和 東北 三省

中國의 東北 三省(遼寧, 吉林, 瀋龍江)은 韓國과 中國의 經濟交流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韓國의 對中國投資件數의 40%, 投資금액의 1/3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東北 三省은 지리적으로 韓國과 가장 가깝다. 遼寧省과 吉林省은 北韓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많은 韓人들이 東北 三省에 거주하여 韓國에게는 매우 친밀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吉林省에는 延邊朝鮮族自治州이 있어 韓國企業의 진출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中國의 1982년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吉林省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110만명으로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었고 瀋龍江省에서 朝鮮族은 43만명으로서 소수 민족 중에서 두번째로 많았다.⁵⁴⁾

中國政府도 東北三省의 지리적인 여건과 자원부존이 韓國, 日本, 러시아 등과의 經濟協力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協力形態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東北三省 지역은 中國 최대의 原油와 木材 생산지이며 철광석, 석탄, 구리, 마그네슘 등의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경작지도 풍부하여 옥수수, 콩, 밀, 쌀 등의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1억 정도의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

53)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러시아 공화국의 沿海州에도 1백만평을 50년간 임차하여 한국전용공단을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베트남에도 호치민市 부근에 210만평 규모의 한국공단 조성을 위해 현재 양국정부가 협의하고 있다.

54) 김병호, "중국 조선족 인구와 분포문제에 관한 연구",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東亞研究, 第22輯, 1991년 6월.

고 있어 노동력도 풍부하다. 한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식량과 대부분의 공산품을 서부에서 수송해와야 한다. 日本은 선진 經濟大國으로서 막대한 市場과 개발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가지고 있고 韓國은 급속한 經濟發展의 경험과 함께 中國이나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資本과 技術도 가지고 있으며 中國商品의 市場으로서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北韓은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北韓의 지리적 위치이다. 北韓은 東北아시아의 中國, 러시아, 韓國, 日本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이 지역에서의 활발한 經濟交流는 자연스럽게 北韓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다.

中國은 최근 吉林省의 훈춘을 貿易都市로 개발하여 東北亞經濟協力の 窓口가 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훈춘을 북방의 深圳 만들고 동시에 中國이 東海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計劃을 승인하였다.⁵⁵⁾ 56) 이를 위해 두만강(圖們江) 지역개발 計劃이 세워지고 특히 두만강변의 防川을 國際 自由貿易港으로 개발한다는 計劃이 제시되었다.⁵⁷⁾ 中國의 計劃이 실현되면 韓國이나 日本으로부터 中國과 러시아의 내륙지방에 이르는 貨物輸送의 시간과 거리가 크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동해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롭고 빠른 수송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北韓과 러시아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北韓은 先鋒, 羅津지역을 經濟貿易地區로 개발할 計劃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의 남쪽부터 한반도와의 경계에 이르는 하산스크(Khasansk)지역이 自由經濟地帶 창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55)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력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東北亞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1991.

56) 중국정부는 1991년 1월 훈춘시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다시 1992년 3월에는 대외개방의 邊境都市로 지정하여 개발에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였다.

57) 防川항이 건설되면 여기서 두만강 河口까지의 거리는 17km가 된다.

고 보고 있다.⁵⁸⁾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中國이나 北韓 또는 러시아 어느 한 나라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공동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만 성공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經濟大國인 日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日本企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韓國企業들도 참여할 것이다. 日本과 韓國의 참여 없이는 이 지역의 개발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은 최근 中國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과거 동남아로 물리던 日本의 直接投資가 이제는 中國으로 집중되고 있다. 韓國은 中國에 대한 진출 뿐만 아니라 北韓과의 經濟協力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만강 지역의 공동 개발에 韓國과 日本의 적극 참여는 美國이나 다른 非東北亞國家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당사국간의 協力を 계기로 東北亞 自由貿易地帶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강화된 經濟協力の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三省에서의 韓中經濟協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다른 하나의 사업은 瀋龍江省의 三江平原개발 사업이다. 韓國의 '대륙종합개발주식회사'와 中國의 '瀋龍江省 농업개발건설총공사'는 1차로 40년 기간으로 10만ha (약 3억평)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기로 1992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의 投資額은 총 4천 2백만 달러이고 投資비율은 50:50이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주로 콩과 밀을 심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제까지의 어느 韓中協力 사업보다 규모가 큰 것이며 제조업이 아니라 농업 개발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⁵⁹⁾

中國의 東北三省이나 다른 어느 지역에 投資하는 韓國企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利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日本이나 다른 어느 市場經濟體制에서와 마찬가지로 韓國에서도 經濟協力の 주체는 利潤을 추구하는 個別企業이다. 그러므로 두만강 개발

58) 스톨약 빅토르, "대블라디보스톡圏 창설구상과 계획",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1992. 6.

59) 金成勳, "三江平原 개발의 역사적 의의", 月刊 展望, 1992. 6.

이든 資源開發이든 또는 단순한 노동집약적 공장의 설립이든 그 사업의 經濟性이 우선 중요하다. 個別企業은 한정된 海外投資財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리한 投資대상국가나 投資 대상업종을 수많은 대상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投資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投資者들이 投資事業의 經濟性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政策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中國은 經濟改革을 시작한지 15년도 안되는 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韓國과의 본격적인 經濟交流은 역사가 이보다 더 짧다. 改革, 開放의 성공으로 과열된 經濟를 조정하는 '治理整頓'의 짧은 기간을 거치고 中國은 최근 다시 改革, 開放을 확대하는 政策방향을 선택하였다. 企業改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國營企業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改革이 추진되고 있으며 對外開放地域은 내륙지방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外國人 投資에 대해서 허용 범위가 금융, 보험, 부동산, 주식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나 東유럽에서 改革이 가져온 經濟의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 혼란 등과 비교할 때 中國의 상황은 매우 돋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의 改革은 中國에서의 改革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으로 經濟體制를 社會主義體制에서 資本主義體制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改革의 범위가 훨씬 크고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中國에서의 改革은 전술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에 市場經濟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公的所有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改革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등장할 市場原理과 公有의 대립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많이 논의되는 國營企業에서의 '三鐵制度'의 폐지도 근본적으로 國營이 民營으로 전환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中國 經濟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農村부문에서 유출되는 잉여 노동의 고용 문제가 될 것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中國經濟는 빠른 成長이 필요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外國資本의 유치와 輸出축진이 필요하다. 中國의 輸出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여러 市場에서 中國과 韓國의 경쟁관계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經濟의 빠른 成長은 다른 한편으로 韓國商品에 대한 큰 市場을 제공하는 것이며 韓國資本의 投資 기회를 확대하고 中國에 설립한 韓國企業의 利潤을 증가시킨다. 中國에 대한 投資가 가져오는 소위 boomerang 효과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를 韓國 產業構造調整의 촉진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中國과 韓國은 東아시아 지역의 한 經濟블록의 구성원으로 協力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가까운 장래에는 商品貿易의 확대와 韓國의 資本과 技術의 對中國 이동이 중요한 協力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中國의 東北部 지역과의 協력이 계속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中國을 동해로 연결시키고 韓國과 日本을 中國,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높은 經濟的 보완성과 함께 이러한 효과는 두만강 지역의 공동 개발에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말해 준다.

60) 三鐵이란 鐵飯碗(철밥그릇), 鐵交椅(철의자), 그리고 鐵工資(철임금)으로서 사회주의의 非效率性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이다.